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23, 1부

열왕기하 11-13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우리는 오늘 저녁에 요아킴과 여호아하스라는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보면 기뻐할 것도 많지만 동시에 슬퍼할 것도 많습니다. Danny와 Micah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나누어진 마음과 나누어진 마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치르는 대가. 먼저 요아스의 면류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내 아달라가 요람의 아내인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남편이 죽은 후 7년 동안 통치했지만 성경에는 이에 대해 사실상 언급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남성적 편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찬탈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떤 공식적인 방식으로든 여왕이나 통치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것을 스스로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녀가 이세벨의 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아합의 딸이요 암리의 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그 왕조를 시작한 사람인 암리와 아합이 그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충격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자식과 손자를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녀는 왜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녀의 권력에 대한 위협입니다. 좋아요, 그녀의 힘에 대한 위협이군요.

나는 거기로 갈 것이지만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그녀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랍니다. 예, 예. 그녀는 아합과 그의 가족이 전멸된 방식에 반응했습니다.

좋아, 일종의 복수로. 예, 그렇습니다. 그녀가 제거하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어떤 왕조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 왕조가 맞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예후가 내 삼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왕조를 멸하고 스스로를 세웠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윗 왕조를 멸하리라. 글썄요, 그건 꽤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을 때, 다윗에게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꽤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성공했나요? 7년의 가치. 그게
다야,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서는 다윗 왕조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아기를
통해. 아기를 통해. '맙소사, 왕조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그녀가 이겼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제거했습니다. 이 작은 아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실례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기입니다. 그게 다야.

한나. 판사의 시대는 재앙으로 내려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기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필요한 것은 아기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일이 필요했지요, 그렇지요? 또 누가 걸렸나요? 신부와 그의 아내.

그러나 여호사바, 11:2.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의 방백들 중에서 훔쳐 빼앗아 간지라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아달라의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시야의 누이.

그녀는 예후에게 막 살해당한 왕의 누이입니다. 그녀는 아달라의 남편 요람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다윗 왕조를 계속 살려낼 것입니다.

그녀는 살해당할 왕자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냈습니다. 그녀는 아달라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그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나에게? 글썄, 내 말은, 그건 절망적이라는 거야.

여기 우리를 반대하는 강력한 여왕이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녀의 모든 법정을 그녀 편에 두고 있고 그들은 모두를 학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아 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통해 행동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됐느냐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10분 동안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고 아달라가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내가 정말로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싶은지 아닌지 궁금해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우리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야다가 준비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경비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여호와와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언약을 맺게도 하시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세 부대가 근무를 합니다. 삼분의 일은 궁궐을 지키고, 삼분의 일은 대리자 곁에 있었고, 삼분의 일은 문에서 경비병 뒤를 지키며 성전 뒤를 지켰습니다.

한 회사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퇴근합니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원 주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 한 부대는 왕궁을 지키고, 근무를 중단했어야 할 나머지 두 부대는 사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준비를 하는가? 왜 이러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까? 오늘밤 여러분은 모두 조용합니다.

분명히 당신은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부끄러워하는 것뿐입니다. 왜? 왜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하는 걸까요? 오른쪽.

그는 성전에서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영토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왜 또? 예.

내 생각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이번에도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만일 저 세대대 중 하나가 아달랴와 함께 간다면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것은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요아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요. 예. 그는 행동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사업이 단지 게으름을 덮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나는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신이시여,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할 것이지만 당신을 통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계획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누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했듯이 단순히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나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존엄한지.

그는 우리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에게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없이도 잘 돌아가느니 차라리 우리 때문에 일이 좀 엉망이 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맙소사.

우리는 그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모두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서 반복이 큰 문제라는 점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경비병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나요? 언약. 예.

또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주신 언약의 사본. 조금 더 내려가면 1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언약에 걸려있습니다.

점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올 거라고 했어요. 좋아요. 이 문맥에서 왜 언약이 반복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이제 기억하십시오. 바알 숭배는 북쪽에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유다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전에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앙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왜 바알을 숭배하는가? 바알은 누구인가? 바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폭풍의 신이십니다. 그는 비의 신이다. 그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면 왜 바알을 숭배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생명 자체가 의존하는 이러한 힘을 얻으려면. 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들이 나의 뜻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것은 조작이 아닌 신뢰의 관계에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팔짱을 끼고 걸어갈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실 수 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얻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두어 번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E. Stanley Jones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은 그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Stanley 전체를 요구하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Stanley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존스(Stanley Jones)는 내가 그렇게 좋은 거래를 한 이후로 계속 내 자신을 꺼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부를 위한 나의 전부. 실제로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립니다. 정말 좋은 거래입니다. 정말 좋은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맥에서 이 언약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즉시 가서 바알의 신전을 헐었습니다. 18절, 이 땅 모든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헐니라.

그들은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였습니다. 우와.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험했다. 그것은 위험했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를 기도합니다. 아니면 그냥 폭동이었나요? 우리는 지난 8~9개월 동안 몸매에 대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었습니다. 폭도들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우연히 좋은 일을 하게 됐는데, 궁금하네요.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내용입니다.